군, 무단점유 사유지 '여의도 면적 7배' … 배상 추진

군 당국이 전국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여의도 7배 크기의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500억 원으로 배상액 규모는 약 350억 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뉴시스' 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군이 무단점유 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배상이 이뤄졌다. 그 동안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해 점유면적과 시설 등을 파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539.42km²로 서울시 면적(605.21km²)의 2.5배에 달한다. 이중 90% 가까운 1,373.88km²(89.3%)는 군이 소유하고 있고, 110.96km²(7.2%)는 타부처 소유의 토지다.

군 사용 토지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공유지는 54.58km²(3.5%)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03km²는 지상권설정이나 사용동의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 적법하게 사용했지만 21.55km²는 적법한 사용 근거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다.

군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21.55km²는 여의도 면적(2.9km²) 약 7개 크기다.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로는 3491억 원이다. 이중 사유지가 17.37km²(약 525만4,425평)으로 공유지(4.18km²)의 4배다.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2,782억 원, 공유지는 709억 원 규모다.

전체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6·25 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과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거나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조사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 80% "친일잔재 청산 안돼"

한국 국민 대다수가 친일잔재가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6일 '이데일리' 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친일잔재 청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산되지 않았다' 고 답변한 응답자는 80.1%에 달했다. '청산되었다' 고 답변한 응답자는 15.5%에 불과했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중이 높아 타 연령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유에 더 많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운동을 대표하는 단어 또는 이미지로는 유관순(43.9%),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 독립·해방·광복(9.6%)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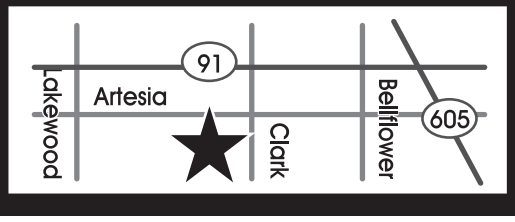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김구(31.4%)가 가장 많은 반면 이승만은 2.7%에 불과했다. 상해는 11.4%를 차지했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독립(42.9%), 애국·애족(24.3%) 등의 순으로 답했다.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친일잔재 청산(29.8%),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의 응답이 많았다.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25.8%),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5.2%),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23.2%) 순으로 답변했다.

100년 후의 한국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성장(23.5%), 국민갈등 해소(15.9%), 남북군사 대치 해소(13.8%), 국제적 영향력 증대(11.7%), 민주주의 발전(11.0%), 보육·의료 등 복지제도 고도화(11.0%) 순으로 답변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무작정 유무선 전화걸기(RDD)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